보성군, 제21회 벌교꼬막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 꼬막이 답이다!’… 전국이 기다린 바로 그 맛! 벌교꼬막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성군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제21회 벌교꼬막축제를 벌교천변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벌교꼬막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꼬막과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인 벌교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향토 문화축제로 지역을 넘어 전국적 축제로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다.

‘청정갯벌의 선물! 벌교꼬막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 전시회, 벌교꼬막을 활용한 먹거리 부스가 들어서며,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벌교꼬막축제는 행사 시작을 알리는 농악 길놀이(시가행진)와 꼬막주먹밥 1,000인분 만들기, 꼬막청소년예술제, 개막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개막식은 MBC 가요베스트와 연계해 나태주, 미스김, 마이진 등 20여 명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태백산맥 문학관 개관 17주년 행사를 비롯해 ‘꼬막이야기 오케스트라’ 공연 ‘아리랑과 함께하는 꼬막음악회’ 무대가 펼쳐진다.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음악회에는 가수 박지현, 보성군립국악단, 민성아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에 이어 화려한 불꽃쇼로 피날레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소설 태백산맥 무대 등반, ‘우리 국악 한마당’,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등 관광객의 발걸음을 붙잡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김길두 추진위원장은 “벌교꼬막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하면서“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벌교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철 별미로 껍질이 단단하고 속살이 붉고 도톰하여 육질이 쫄깃하면서도 단맛을 자랑한다.

보성/김운기 기자

완도군, ‘청년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 지역 활력 UP!

최우수 공동체 ‘파도파도 완도’ 등 3팀 선정

완도군은 지난 12일 청년센터 ‘완생’에서 「2025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읍면의 5개 청년 공동체가 참여해 청년과 가족 대상 모래놀이 심리 상담(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 완도의 역사·문화를 담은 콘텐츠 제작(파도파도 완도 팀), 업 사이클링 프로젝트(섬마을로 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심사 결과 ‘파도파도 완도 팀(완도읍)’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아름다운 청산도를 배경으로 한 컬러링 북을 직접 제작해 청산도만의 고유한 풍경과 정취를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담아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색칠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완도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완도읍)’은 청년층의 심리 안정과 치유를 돕는 모래 놀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공동체로 뽑혔다.

‘섬마을로 팀(노화읍)’은 섬마을 청년 가족의 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운영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11월 21일 열리는 전라남도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완도군 대표로 참가한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과 문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영광군수, 친환경 벼 매입 현장 찾아 농업인 격려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9,516톤 물량을 지난달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건조벼 매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5년산 벼 매입량은 산물벼 460톤, 건조벼 6,828톤, 친환경 벼 655톤, 가루쌀 1,573톤이고,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새청무 2개 품종이다.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20% 이상 혼입하여 출하하거나 친환경 벼 잔류농약 검사 결과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영광군의 친환경 벼 매입 물량이 작년 344톤에서 올해 599톤으로 증가해, 작년 대비 174%의 큰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친환경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속적인 친환경 벼 재배를 위한 것으로, 농가의 소득향상과 영광 친환경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한 깨씨무늬병·수발아 등 읍면에 접수된 피해 벼에 대해서도 농가가 희망하는 전체 물량을 매입할 계획이며, 신속한 매입과 정산이 이뤄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친환경 벼 매입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친환경 벼 매입량 증가를 통해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이현식 기자

담양군, 수능 후 청소년 일탈 예방 위해 유해환경 점검 추진

민·관·경 합동으로 번화가 중심 계도 활동 강화

담양군은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양읍 번화가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유해환경 합동 점검을 추진했다.

이번 점검은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이 참여해 수능 직후 청소년 출입이 잦은 학교 주변과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는 업소에는 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며 유해환경 예방 활동을 펼쳤다.

또한 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들에게 청소년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하며 불법 판매 차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서생현 회장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점검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번 합동점검이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이벤트 “기부하면 선물까지”

연말정산 앞두고 장흥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노력

장흥군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사랑 나누고, 혜택 더하기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이벤트는 기부 활성화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기간 내 장흥군에 기부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50명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만원권 50명, 5천원권 500명으로 기부자에게는 추첨 결과에 따라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금이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이번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작은 기부가 지역 발전의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장흥군 제공

화순군, ‘2025 문해한마당’ 성황리 개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월 12일(수) 화순어울림센터 체육관에서 “문해, 글과 마음이 춤춘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5 문해한마당’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인 문해교육 학습자들의 한 해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배움의 열정과 감동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로 꾸며졌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문해교육은 청춘을 다시 찾는 여행이며, 배움으로 삶이 더욱 빛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평생교육을 통해 모두가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화순을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도 “문해한마당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앞으로도 배움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라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행사는 화순읍 매화마을 학습자들의 진도아리랑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문해 퀴즈, 체육행사,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진순, 주복순 어르신의 시 낭송 무대는 배움을 통해 새롭게 익힌 글로 마음을 표현해 큰 감동을 주었으며, 문해 강사들의 합창과 율동 공연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의 학습성과를 기리는 ‘문해왕 선발’도 함께 열렸다. 그중 화순읍 연양2리 문해교실의 노문석 학습자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큰 박수를 받았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